

“오월 광주 정신 세계에 알리고 싶다”



● 2018. 9. 16

세계적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 ‘임을 위한 행진곡’ 16일 초연
부친 한국전 참역로 남다른 인연...ACC 페스티벌도 참여
시향 문예회관 공연...지휘자는 하이코 마티아스 펠스터

“5·18로 상징되는 광주의 아픈 역사를 많은 젊은이들이 알지 못한다. 비단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했던 이들의 고귀한 정신을 모르고 있다. 오월 광주 정신을 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고 싶어 작곡을 하게 됐다.”

국내외 유명 작곡가들이 클래식(장작 관현악곡)으로 재탄생시킨 ‘임을 위한 행진곡’이 이번에는 세계적인 작곡가 마이클 도허티(Michael Daugherty)와 만났다.

오는 16일 오후 7시 광주시향 특별음악회 ‘GSO 프롤스’에서 마이클 도허티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모티브로 한 창작 관현악곡 ‘민주의 노래’가 1부 마지막 곡으로 세계 초연된다. 이번 초연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이 올해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 대중화를 위해 추진 중인 문화콘텐츠의 제작 일환으로 기획됐다.

연주회를 앞두고 광주를 찾은 마이클 도허티는 13일 광주비엔날레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아버지가 한국전쟁(1950-1953) 당시 참전용사로 한국에 근

무했기 때문에 남다른 인연이 있다”며 “이번에 작곡한 ‘민주의 노래’가 광주에서 울려 퍼진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마이클 도허티는 맨하탄 음대와 예일대학교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수학했다. 현재 미시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이며 대표작으로 ‘메트로폴리스 교향곡’과 피아노협주곡 ‘대우스 엑스 마키나’가 있다. 2010년, 2011년, 2017년 세 번에 걸쳐 그레미 상(베스트 클래식 컨템포러리 작곡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를 위해서는 작곡가의 지명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광주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이에 대해 위촉위원이었던 김희정 ACC콘텐츠사업본부장은 “제안 당시 마이클 도허티는 향후 5년간의 스케줄이 잡혀 있는 상태였다”면서도 “광주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더불어 정치적 불나 인권문제 등에 있어 진보적인 관점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허티 교수는 지난 2016년 11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주년 기념 페스티벌에 참여해 ‘아시아를 위한 심포니’ 페스티벌에서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아메리칸 고딕’을 한국 초연한 바 있다.

“민주의 노래 첫 번째 악장 ‘Beloved’는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며 죽어간 인류 역사 속 영혼들을 기리는 데 초점을 뒀다. 5·18 당시 희생당한 분들을 추념하기 위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일부 선율을 사용했다.”

또한 도허티 교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세계화를 위해 두 번째 악장 ‘Freedom’은 세계 인권사에 남을 인물들의 투쟁도 모티브로 삼았다. 그는 “간디, 루터 킹, 탈리이라마, 넬슨 만델라 등 정치적 자유와 시민권,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헌신했던 이들을 기억하기 위해 생기 넘치는 곡으로 작곡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체코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야나체 필하모닉 상임지휘자인 하이코 마티아스 펠스터가 지휘를 맡는다. 하이코 펠스터는 브란덴부르크 극장의 최연소 음악감독을 역임했으며 뮌헨 심포니 수석 상임지휘자 등을 역임했다. 특히 올해 7월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국립교향악단의 연주로 ‘임을 위한 행진곡’ 체코특별음악회 지휘를 맡은 바 있다.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무유등등(無有等等)’

소박한 칼질... 세상을 향한 애정

조진호 전 시립미술관장 21일까지 서울서 목판화전

조진호 전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자신의 작업의 뿌리가 광주의 오월을 발언하고 반영한 목판화였다고 말한다. 오랫동안 수채화 작업을 해온 조 작가는 1980년대 목판화 작업을 통해 ‘따뜻한 저항’의 메시지를 담았다. 1984년과 1986년 두 차례 목판화 개인전을 열었고 ‘오월시’ 동인과 함께 오월시 판화집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있으라’ 제작에도 참여했다. 미술관장 임기를 마치고 화순 작업실에 머물며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조 작가가 판화 작품만을 모아 오는 21일까지 전시회를 연다. 서울 나무아트 갤러리에서 시작하는 ‘한국현대목판화 발굴 프로젝트’ 첫 번째 주자로 초청돼 마련한 전시다. ‘무유등등(無有等等)’을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소박한 칼질로 세상에 대한 애정어린 목소리를 전해온 그의 대표 목판화를 만날 수 있다.

1980년대 목판화가 갖고 있는 질박한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의 작품 속에는 치열했던 ‘오월의 모습’이 담겨 있고, 슬한 세월 동안 광주의 아픔을 어루만져 온 무등산과 통일 염원을 담은 백두산 풍경도 들어있다.

그가 오랫동안 작품에 새긴 세상 모든 어머니의 모습에서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묻어나며 흥겨운 농악대 모습, 오일장을 찾은 시골 부부, 홀로 담배 피우는 노인 등 주변인들에 대해 따뜻한 시선으로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722-7760. /김미은 기자 mekim@

스케치로 걷는 이탈리아·그리스

장성공공도서관 김수옥전
15·29일 미술이야기 강좌

장성공공도서관(관장 김점수)은 김수옥 작가 초대전 ‘스케치로 걷는 여행 -이탈리아, 그리스의 기억을 담다’전을 오는 30일까지 개최한다. 도서관 갤러리 ‘뜨락’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김 작가가 가족과 함께 3년간 떠난 유럽여행에서 스케치한 작품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는 로마, 아테네, 크레타, 산토리니 등 이탈리아와 그리스 주요 도시의 풍경과 일상 등을 담은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떠먹는 미술이야기 떠미셈”으로 활동하며 미술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는 김 작가는 이번 전시와 연계해 ‘그림이 있는 풍경, 여행과 함께하는 미술이야기’를 주제로 두 차례 오픈 강좌를 진행한다.

15일 오후 3시 열리는 첫 강의에서는 에솔도시 피렌체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 등 르네상스 3대 작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29일 강의에서는 ‘그리스 신화를 그림으로 읽는다’를 주제로 강의 한다.



밤의아테네

전남대 사범대학 미술교육과를 졸업한 김 작가는 광주미술협회, 광주전남수채화협회, 광주전남여성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1-399-163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가을 밤 ACC 아트 트레일러 속으로

오늘~15일 문화전당 광장
드럼 콘서트·버스킹 뮤지컬
하늘마당에선 컬처마켓

한결 선선해진 가을 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펼쳐지는 ‘ACC 아트 트레일러’가 돌아온다.

‘ACC 아트 트레일러’가 14-15일 오후 7시 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다양한 공연 장르를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는 광주문화재단과 연계해 참신한 젊은 뮤지션들과 관록 있는 실버연주단이 무대에 오른다. 첫날에는 화려한 드럼연주를 자랑하는 ‘DPA’와 5인조 ‘NS 재즈밴드’의 콘서트로 꾸며진다. NS 재즈밴드는 공연에서 1930년대 스윙 재즈부터 현재의 모던 재즈까지 다양한 색채의 재즈를 들려준다.

다음날에는 색소폰을 사랑하는 중장년층의 모임인 ‘색소폰 앙상블 연주단’이 관객을 맞이한다. 마지막으로 버스킹 뮤지컬 ‘영택스’가 음악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



‘ACC 아트 트레일러’ 공연 모습.

을 위로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동안 문화전당 하늘마당과 구름다리에서 ‘ACC 아시아컬처마켓’도 열린다. 컬처마켓은 오는 11월10일까지 매주 금·토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수묵으로 만나는 장날 풍경

광주시립 무등도서관 갤러리 30일까지 박인주전

사람 향기 물씬 나는 장날 풍경이 펼쳐진다. 손님을 기다리며 도라지를 까는 할머니, 날쌔게 움직이는 물고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아이, 땀방울이 아저씨, 머리에 짐을 이고 양손 한 가득 장을 본 어머니 등 정겨운 모습이 인상적이다.

인심 넘치는 장날의 모습을 담은 수묵화로 그려낸 ‘박인주 수묵 드로잉 작품전’이 오는 30일까지 광주시립 무등도서관 갤러리에서 열린다.

시간이 날 때마다 오일장 등 전통시장을 찾아 물건을 사고 상인들, 손님들의 살아있는 표정에서 생동하는 삶의 모습을 포착해온 행당 박인주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장날 풍경을 모두 25점의 작품으로 표현해냈다.

박 작가의 작품은 광주시립도서관과 중국 광저우도서관이 맺은 양해각서에 따라 광저우도서관에서도 오는 10월10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며 전시가 끝난 후



‘다슬기’

에는 도서관 측이 기증돼 우리 문화와 전통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

호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박 작가는 남부미술대전 대상, 전남도 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한국화대전·광주시립미술대전 추천작가와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광주대 평생교육원에서 한국화를 강의하는 박 작가는 현대사생회, 광주 여류작가회, 호목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613-7741.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한정식 A코스 50,000 | B코스 40,000 | C코스 30,000
일품요리 굴비정식 | 삼합정식 | 떡갈비정식 | 황태찜정식 | 새우튀김정식 22,000

대를 이은 가족모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각별한 인연 **금수장호텔 아리랑하우스**
www.geumsoojang.com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훔플러스 건너편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기원합니다.
9월 23일~25일은 추석휴무입니다. 26일(수)부터 정상적 모시겠습니다.